

1960~1990년대 신문기사를 통해 본 근현대 한국 도시에서 음식물찌꺼기의 위상 변화

황 의 진*

목 차

-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 II. “부패하는 힘”, 음식물찌꺼기의 의미 변화
- III. 음식물찌꺼기, 현대화된 부업의 위협으로 지목되다
- IV. 주부의 몸과 통제되지 않는 음식물찌꺼기의 위협
- V. 나가며

국문초록 | 본 연구는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언론 자료를 분석하여, 다양한 용도와 의미를 지녔던 음식물찌꺼기가 문화·제도적 ‘오염’의 범주로 재현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오늘날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폐기하는 공식적 폐기물로서 1990년대의 제도적 변화와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정립되었다. 한편 그 이전의 한국사회에서 음식물찌꺼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쓰레기로 지목되지는 않았으나 ‘더럽고 위험한 물질’, 따라서 전문적인 관리와 통제를 요구하는 물질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 글은 음식물쓰레기의 본격적인 처리처분이 마련되는 1990년대 이전에, 해당 물질이 ‘공식적 쓰레기’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사회문화적 바탕이 이미 형성되고 있었음을 밝힌다.

특히 음식물찌꺼기를 오염으로 재현하는 담론에서 다음의 두 요소는 중요한 의미를

* 黃義珍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박사수료 hwej0529@hanmail.net
투고일: 2026. 5. 23. 심사완료일: 2026. 6. 12. 게재확정일: 2026. 7. 13.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6.50..141>

지낸다. 하나는 주부를 전담 관리자로 둔 현대 부엌 공간이다. 이는 가내를 위생적이고 멸균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부엌의 과학화’ 아래 계속해서 개량되었다. 부엌 근대화 담론에서 중산층 가정의 주부는 식구들의 위생 건강을 책임질 ‘가정의 관리자’로서 각종 화학물질을 살포하며 음식물찌꺼기를 통제하도록 유도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각종 ‘과학적’ 통제를 무력화시키고 계속해서 새로운 처리 방안을 요구하는 음식물찌꺼기의 유기적 물질성(악취와 물기, 부패 용이성)이다. 이로 인해 음식물찌꺼기는 ‘잔반’이나 ‘퇴비’보다도 신속히 제거해야 하는 오염이자 해충을 불러올 수 있는 잠재적 위협으로 재규정되었다. 이 글은 음식물찌꺼기가 현대 위생 담론 아래 ‘복합적인 위협’으로 지목된 경위를 짚고, 음식물찌꺼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원된 화학물질이 음식물찌꺼기의 ‘위험성’을 더욱 예상 불가능한 형태로 증폭시켜 나갔음을 지적한다.

핵심어 | 음식물찌꺼기, 음식물쓰레기, 오염, 위험, 부엌의 근대화, 가내 위생, 주부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급속한 도시화가 야기한 도시 공해와 환경 오염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매일 막대한 양이 생산되는 생활쓰레기를 일상의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하며 배출량을 줄이고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음식물쓰레기 역시 이러한 흐름을 타고 존재감이 부각된 쓰레기 가운데 하나였다. 이 연구는 신문자료를 통해 한국사회의 음식물찌꺼기를 단순한 생활 부산물이 아니라 위생 담론이 전개된 중심 물질로서 조명한다. 먼저 과거 ‘부엌쓰레기’와 ‘잔반’ 또는 ‘찌꺼기’로 불린 남은 음식물이 1960년대에서 1990년대를 거치며 가내의 위험물이자 공공의 오염으로 구체화한 양상을 추적한다. 이어 일상의 음식물쓰레기 관리 노동이 중산층의 위생적 생활양식을 중심으로 일종의 윤리적 의미를 띠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때 중산층 주부라는 도시적 주체와

현대화된 부엌이라는 공간이 주요하게 호명되었음을 살펴본다.

공공 차원에서 수거·처리·처분¹⁾되는 생활쓰레기의 개념과 분류 기준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마련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90년대를 거치며 정부는 도시에서 다량으로 생성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고 적절한 처리 방안을 내놓고자 하였다. 이에 1995년 음식물쓰레기 협의체를 구성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대책을 시행하고, 2005년에는 토양오염 등의 부차적인 오염을 막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기에 이른다.²⁾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제도 및 인프라가 시민들에게 어떠한 반응과 인식을 야기하는지 살펴보는 논의³⁾가 여럿 이뤄진 바 있다.

인프라의 구축은 음식물쓰레기라는 폐기물 범주를 공식화하고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구별하여 관리할 대상으로 만들어냈다. 음식물쓰레기를 생활공간에서 신속히 분리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쓰레기 흐름(waste stream)⁴⁾이 새롭게 제도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공식 폐기물이 되기 전부터 음식물 찌꺼기는 특유의 물질성으로 인해 여타 건조한 종류의 쓰레기(지류, 의류, 폐트병류 등)와 일찍이 구별되고 있었다. 즉 남은 음식물을 단순한 찌꺼기가 아니라 독특한 성격의 오염물로 인식하는 관점은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는

1) 폐기물관리법(법률 제 18853호, 시행 2023.04.27.)은 처리·처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2조 5의 3항).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2조 6항).

2) 오길중, 「기획특집」 음식물쓰레기 정책의 국내·외 현황 비교와 개선점, 『모심과살림』 21, 2023, 20-33쪽.

3) 관련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정재춘·정원태·탁성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유기물자원화』 3(2), 1995, 91-96쪽; 이상용·이승원·김정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효율 및 저감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기술학회지』 16(1), 2015, 26-34쪽; 홍정화, 「가정 내 음식물쓰레기 감축 행동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계획된 행동 이론을 중심으로」, 『외식경영연구』 25(3), 2022, 81-105쪽.

4) Reno, J., “Waste and Waste Management,”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44, 2015, pp.557-572.

제도적 범주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살펴보겠지만 잔반 또는 찌꺼기가 사회문화적 오염으로, 그리고 다시 음식물쓰레기로 변모하는 흐름은 음식물로 구성된 ‘대중 쓰레기(mass waste)’⁵⁾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공중위생 담론이 부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⁶⁾

이에 주목하는 관점은 현대 사회의 쓰레기가 단순히 폐기된 물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즉 쓰레기는 “위험, 관리 대상, 상품, 자원, 축적물(archive), 더러움, 물신, 위험(risk), 무질서, 제자리를 벗어난 물질(matter out of place), 통치 가능한 대상, 비체(object)⁷⁾, 그리고 행위자”⁸⁾로서 계급·젠더·시민권과 같은 사회적 범주를 반영하거나 재생산하는 물질이다. 또한 쓰레기는 산업화라는 특수한 역사·사회적 맥락에서 탄생한 ‘대중 쓰레기’⁹⁾로서 폐기물 처리 방식과 실천에 대한 전문 과학지식을 수반하며

5) ‘mass waste’는 막대한 양으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의미도 지닌다. ‘대량 폐기물’이라는 번역어가 한층 익숙한 어감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쓰레기’라는 번역어를 굳이 쓴 이유는, 이 같은 쓰레기와 인프라가 도시화·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도시적 삶을 영위하며 폐기물 실천을 수행하는 시민적 주체를 호명하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Fredericks, Rosalind, *Garbage Citizenship: Vital Infrastructures of Labor in Dakar, Senegal*, London : Duke University Press, 2018.

6) Reno, J., “Toward a New Theory of Waste: From ‘Matter out of Place’ to Sign of Life,” *Theory, Culture & Society* 31(6), 2014, pp.3-27.

7) 비체 또는 오브젝트(object)는 줄리아 크리스테바에 의하면 “부적절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기보다 동일성이나 체계와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개념화했다. 즉 자아나 타자로 위치 지어지지 않고 상징체계에 통합되지 않는 존재이다. 또한 “알고 싶지 않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서” 우리 안에서 몰아내고 “버리는 것”이다. 주체는 비체를 분리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쓰레기는 지정된 한계나 영역, 규범을 넘나들며 질서의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점, 그리고 이질성이 이야기하는 혐오나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비체로 볼 수 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역,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23-25쪽.

8) Doherty, J. and K. Brown, “Labor Laid Waste: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on Waste Work,”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Class History* 95, 2019, p.4.

9) Reno, J., 2014, op.cit.

사회적으로 규정된다. 이 글은 일상적 물질인 ‘찌꺼기’가, 있어야 할 곳과 처리 방식이 엄격하게 제시되는 사회적 오염으로 의미를 부여받는 과정을 신문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쓰레기의 처분 방식은 단지 기계적 공정에 머무르지 않고, 위험을 상이한 집단공간에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통치의 일환으로 형성된다. 다시 말해 무엇을 쓰레기로 규정하는가의 문제는 쓰레기 자체에 내재한 더러움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는 무엇을 위험 요소로 규정하며 어떤 윤리적 실천의 양식을 권장하는지를 드러낸다. 즉 쓰레기 인프라라는 “사람들의 행위를 교정하는 일련의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¹⁰⁾을 포 함하며 개인을 ‘위생적인 현대인’으로 탈바꿈시키는 근대적 실천을 제시¹¹⁾ 한다. 한국사회에서 쓰레기를 처분하는 방식 역시 근대적 위생 담론이 확산 되고 통치 체계가 공고화하는 과정과 맞물려 형성되었다. 일례로 20세기를 전후하여 도시 내 오물과 분뇨를 처리하는 체계가 새롭게 마련되면서 위생 담론을 매개로 한 식민지 당국의 통치가 전개된 것¹²⁾ 역시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중요한 점은 수거 체계가 발전하고 도시가 위생적인 공간으로 표상되어 갈수록 오물에 부여되는 가치가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기존에 거름 등의 자원으로 활용되던 똥오줌은 정부나 시 당국의 행정적 관심 아래 놓이며 전문 관리 대상으로 탈바꿈했으며¹³⁾ 이는 분뇨를 위험한 물질, 그리고 위생 과 청결화의 대상으로 규정한 사회적인 인식 전환을 수반하였다.¹⁴⁾ 이처럼

10) 오은정, 「“쓰레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서울의 뉴타운 쓰레기-인프라와 분리수 거 리듬 만들기」, 『한국문화인류학』 58(2), 2025, 55쪽.

11) 수전 스트래서, 김승진 역, 『낭비와 욕망: 쓰레기의 사회사』, 이후, 2011.

12) 서호철, 「서울의 똥오줌 수거체계의 형성과 변화-189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반까지」, 『서울과 역사』 93, 2016; 김은진, 「20세기 초 일제의 서울지역 오물처리 체계의 개편과 한국인의 대응」, 『서울과 역사』 119, 2025, 175-221쪽.

13) 서호철, 앞의 논문, 178-179쪽.

14) 박운재, 「위생에서 청결로-서울의 근대적 분뇨 처리」, 『역사비평』 126, 2019, 261

일상의 물질이 폐기물로 규정되는 과도기 속에서 오물은 기존에 지니던 다양한 의미를 잃고 사회적 오염 또는 위험으로 규정되기 시작한다. 이로써 근대화된 도시 공간에서 대중 쓰레기는 공동체의 위생을 위협하는 물질, 그 존재 자체가 문제시되는 터부로서의 오염¹⁵⁾으로 자리 잡는다.

한편 공동체의 오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안은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동원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체계로 자리하기 어렵다. 역사적 산물로서 폐기물처리 인프라는 사회·생태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내포¹⁶⁾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프라는 기획이나 제도화 단계의 의도를 벗어나 작동 하거나, 때로 소모적인 개발을 불러오며 모종의 ‘폐허화’¹⁷⁾에 도달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의 폐기물 활용 방식을 비위생적이며 전근대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탄생한 새로운 인프라, 즉 쓰레기를 더 위생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발전된’ 체계 역시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고 닥쳐올 또 다른 위험이 나 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배상희는 한때 쓰레기의 종착점으로 여겨지던 난지도 매립지가 “위태롭고 불안정한 관계들” 위에서 작동하며 “일상적으로 재난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 ‘느린 재난의 인프라’”¹⁸⁾로 존재했다고 지적한다.

이 글은 1990년대 이전의 한국사회에서 음식물찌꺼기가 독특한 물질성을 지닌 오염으로 의미화된 양상을 고찰하고, 사회문화적 담론의 차원에서 어떠한 위생적 지향과 터부가 재현되었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1960~90년대의

쪽.

15) Douglas, M.,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London: Routledge, 1966.

16) Larkin, B., “The Politics and Poetics of Infrastructur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42, 2013, pp.327-343.

17) 전원근, 「연안마을 인프라의 연쇄와 폐허의 생산: 애월항의 다종적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49, 2024, 91-125쪽.

18) 배상희, 「느린 재난의 인프라: 텅마주이와 연탄재를 통해 본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의 형성과 작동, 1977-1993」, 『환경사회학연구(ECO)』 26(2), 2022, 45쪽.

신문 기사 및 사설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¹⁹⁾ 음식물찌꺼기가 역시 일상적 물질로서 존재해온 그 이전의 상황과 연결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의 자료도 참고하였다. 산업화 시기의 당시 일간지는 정부가 제시한 위생, 윤리적 방침을 효과적으로 민간에 전달하는 통로였을 뿐 아니라 독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창구이기도 했다. 특히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사나 사설은 공중 보건위생 담론을 구성하는 반복적인 수사나 강렬한 감각적 이미지를 다수 담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연구자는 신문기사에 나타난 음식물찌꺼기·쓰레기의 취급 사례와 방법, 관련된 사회문화적 인식을 심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당시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공적 지침과 함께 일상 속의 윤리·위생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의 사회·문화·경제면과 경제 전문지를 분석하였다. 신문기사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를 통해서 발굴하고 검토하였다. 이때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찌꺼기’, ‘부엌’ 등 주요 키워드를 먼저 검색한 후 노출된 기사를 검토하며 빈번히 등장하는 주요 단어·소재를 기록해 나가는 방식으로 키워드를 확장하고 추가하여 검색하였다.²⁰⁾

19) 이 글은 음식물찌꺼기 및 쓰레기를 다룬 기사를 주요 자료로 삼은 반면, 제도·행정적 일차자료나 구술자료 등은 다루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자료들을 또 다른 지면에서 살피고자 한다. 이 글은 30년 이상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음식물찌꺼기의 ‘오염화’ 담론을 보여줄 수 있는 표현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

20) 보다 구체적인 검색어와 검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네이버뉴스 라이브러리에서는 진개(塵芥, 189건), 부엌쓰레기(563건) 및 부엌쓰레기(33건), 찌꺼기(7,380건)를 검색하여 1900년대부터 1999년까지의 기사를 확인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서는 주개(廚芥, 1,367건), 부엌(230건), 찌꺼기(3건)를 검색하여 1890년대 말~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사를 확인하였다(검색 결과가 없는 키워드는 제외). 연구자는 2023년과 2024년에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찌꺼기’, ‘부엌’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관련 자료를 폭넓게 검토한 다음, 2025년과 2026년에 이전의 신문기사 자료를 재검토하고 ‘진개’, ‘주개’, ‘부엌쓰레기’, ‘부엌쓰레기’ 등의 다른 키워드를

이어지는 장들에서는 음식물찌꺼기를 단순한 잔반이 아니라 가정생활을 위협하는 오염으로 재현해 내는 사회문화적 담론을 검토, 재구성한다. 먼저 2장에서 ‘잔반’ 또는 음식물찌꺼기가 가내의 ‘오염’으로 묘사되고 1970년대 이후의 현대식 부엌이 그러한 오염을 빈틈없이 관리할 거점으로 지목되었음을 살펴본다. 이어 3장에서는 아파트로 대표되는 중산층식 생활양식의 보편화를 타고 현대 부엌이 가내 위생의 중심으로 주목받은 흐름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4장은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는 위생의 공간, 부엌에서 오염을 통제할 기술로서 화학물질이 사용된 과정을 추적하고, 이에 따라 위생 관리자인 주부의 몸이 이중의 위험에 연루되었음을 설명한다. 이러한 흐름은 1990년대를 거치며 이루어진 폐기물처리 인프라의 구축으로 이어진다.

이 글은 음식물찌꺼기와 음식물쓰레기라는 두 용어를 시기별로 구분하였음을 밝혀둔다. 찌꺼기, 잔반, 주개, 부엌쓰레기는 상호 혼용되는 단어로 음식물쓰레기(음식물류폐기물)가 등장하기 이전, 즉 1990년대까지 흔히 쓰였다. 반면 음식물쓰레기는 1980년대까지는 비교적 드물었으나 1990년 이후의 신문기사에서 차츰 언급되기 시작한 단어이다. 오늘날 찌꺼기나 잔반 등의 용어는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쓰레기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음식물찌꺼기가 사회문화적 오염으로, 그리고 이후 음식물쓰레기로 변모하는 흐름을 강조하기 위해 ‘찌꺼기’와 ‘쓰레기’를 의도적으로 구별하였다.

Ⅱ. “부패하는 힘”, 음식물찌꺼기의 의미 변화

음식물쓰레기라는 공식적인 범주가 제도화한 1990년대 이전까지 남은 음식 찌꺼기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한데 섞여 폐기되었다.²¹⁾ 이처럼 남은

더하여 검색하였다.

음식물은 생활쓰레기를 통칭하는 보통쓰레기 또는 진개(塵芥)와 섞이는 한편²²⁾ 특유의 물기와 냄새 때문에 ‘잔반’이나 ‘부엌쓰레기’, ‘찌꺼기’, 또는 주개(廚芥) 등으로 불리며 다른 마른 쓰레기와 구별되었다.²³⁾ 또한 유기물질로서 부패가 쉽다는 점을 이용해 일상에서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예컨대 1950년대의 한 기사는 “부엌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고기반찬 부스러기 무 배추 채소 등의 찌쓰레기를 잘 이용하면 훌륭한 비료가 될 것”²⁴⁾이라고 권유한다. 그런가 하면 음식물찌꺼기는 먹다 남은 ‘잔반’과 혼용되며 음식의 속성을 비교적 강하게 띠기도 했다. 음식이 부족한 전후에는 누군가가 먹다 남은 음식물찌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²⁵⁾

음식물찌꺼기, 또는 부엌쓰레기[廚芥]를 자원으로 활용하라는 권유는 사실 오래된 것이었다. 일제의 주도 아래 전시체제가 한창이던 1940년대의 신문기사에서 찌꺼기는 귀중한 자원으로 흔히 묘사되었는데, 특히 총독부의 입장을 대변하던 언론일수록 그러한 논조가 강하게 나타났다. 일례로 1941년 『경성일보』 기사는 “가급적 진개를 내지 않는다는 마음새짐” 아래 주방 입구의 쓰레기통에 뭔가를 버리기 전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권한다. 나무나 종이 조각은 땔감으로 쓰고, 깡통과 유리는 재활용업체

21) 1990년대 전후의 쓰레기 인프라 마련에 대해서는 소준철, 「서울시 쓰레기 처리체계의 형성, 1966-1993」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22를 참고하십시오.

22) 예를 들어 계란 껍데기는 부엌쓰레기로 분류되어 “부엌바닥에 버리거나 마당에 던졌다가 쓰레기통으로 드러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버릴물건없다 계란껍질도 이 러케 소용된다」, 『동아일보』, 1935. 9. 10.

23) 김상은, 「일제하 도시청소행정의 전개와 변화—「조선오물소제령(朝鮮汚物掃除令)」 제정 전후의 비교—」,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쪽.

24) 「용의주도한 생활 좁은 땅에라도 소채를 가꾸자」, 『경향신문』, 1950. 4. 30.

25) 당시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찌꺼기’를 먹고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건은 빈번히 확인된다. 1962년 기사에 실려 있다. 「16명 집단 식중독 반도호텔서 나온 찌꺼기 먹고」, 『경향신문』, 1962. 4. 28.

에 팔며 차 찌꺼기는 군마(軍馬)의 사료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생선 찌꺼기나 야채 조각은 웬만하면 먹되 남은 것은 빈 땅에 묻어 일평원예(一坪園藝)에 기여하라고 하였다.²⁶⁾ 마찬가지로 1942년의 다른 기사도 도시지(都市地)의 가정소채(家庭蔬菜)에는 기생충 위험이 있는 분뇨보다도 가정의 주방에서 나오는 채소 부스러기나 주개의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공터의 구석에 구멍을 파고 주개(厨芥)나 채소 부스러기, 진애류(塵埃類, 티끌과 먼지)를 구운 재나 낙엽 등을 쌓아 거둬하고 여기에 쌀뜨물(お米のトギ汁)이나 남은 국물(残りもの) 등을 부어 부패(腐敗)시키면 좋다”는 구체적인 퇴비화 방법도 설명한다.²⁷⁾ 식민 당국의 관점 아래 찌꺼기는 ‘국가적 자원’을 구성해야 하는 무수한 가내 자원의 하나로 비추어진 것이다.

반면 음식물찌꺼기는 일상을 위협할 수 있는 오염물로서의 특성도 지니고 있었다. 부엌의 물기 어린 쓰레기통에서 불결한 ‘가스’와 박테리아가 발생하여 전염병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석유나 석탄산 등의 소독약을 뿌리라는 권유가 일제강점기에도 일찍이 나온 바 있다.²⁸⁾ 식중독이나 해충 발생의 위험은 부엌쓰레기의 “부패하는 힘”²⁹⁾에서 비롯된다는 경고였다. 주지하다시피 남은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형성된 근대 위생 담론을 구성하는 실천 가운데 하나였다.³⁰⁾ 해방 이후에도 음식물찌꺼

26) 「心掛一つで出さずに済むお家の「塵芥」」, 『京城日報』, 1941. 3. 19.

27) 「厨芥を利用せよ」, 『京城日報』, 1942. 4. 16.

28) 관련된 기사로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깨끗해야만할 찬장·부엌·수채 벌레가 생기지 안토록 주부들은 주의하십시오」, 『중외일보』, 1927. 8. 11.

「위생상주의해야할 부엌과 쓰러이통- 부엌에는 환기창을 뚫고 쓰러이통도 구멍을 뚫어」, 『중외일보』, 1928. 7. 17.

「부엌을 엇더케 고칠가 수도와 찬장과 뒤주와 하수도까지 부엌속에 두도록(대답)」, 『매일신보』, 1938. 5. 4.

29) 「부엌살림」, 『매일신보』, 1938. 8. 24.

30) 박운재, 앞의 논문: 정혜경·김혜숙, 「1910년대 식민지조선에 구현된 위생정책」, 수요역사연구회 편,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매일신보 1910년대』, 도서출판

기는 ‘잔반’이나 비료보다도, 소독과 방역을 통해 깨끗이 처리하지 않는다면 식중독을 일으키고 쥐와 벌레를 쉽게 불러들일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물질로 묘사되곤 했다. 예를 들어 1968년의 한 기사에서는 “백해무익의 동물”인 쥐를 없애기 위해 “부엌관리를 철저히 하고” “뚜껑 있는 쓰레기통을 만들어 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권유한다.³¹⁾ 또한 1972년의 기사는 “보일러 시설이 완비된 고급주택”에서조차 “음식물을 오염시키기 일쯤고 사람에게 병균을 옮”기는 바퀴벌레가 꼬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음식물은 반드시 뚜껑을 덮어두고 쓰레기를 자주 치워야 하며” 봉산이나 “20%의 아비산”, “1.9%의 DDVP(농약의 일종)”를 음식물과 섞어 바퀴벌레가 잘 다니는 길목에 놓아두라고 제안한다.³²⁾

음식물찌꺼기가 주로 발생하는 공간은 바로 부엌이었다. 부엌은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통제하고 깨끗하게 관리할 장소로서 끊임없는 개량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해방 이후의 한국사회에서 주택 개량은 정권이 바뀌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된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³³⁾ 이른바 ‘생활의 근대화’는 의복 및 주거, 식음(食飮)의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전반적인 생활을 ‘합리화’

두리미디어, 2005, 61~122쪽; 김백영, 『지배와 공간—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09; 한지원, 『조선총독부 의료민속지를 통해 본 위생풍습 연구』, 민속원, 2013.

31) 「쥐는 노린다 당신의 생명과 재산을…」, 『동아일보』, 1968. 9. 7.

32) 「질병의 온상… 바퀴벌레」, 『매일경제』, 1972. 12. 16.

33) 생활의 ‘합리화’ 또는 ‘과학화’를 명목으로 부엌을 개량하려는 정부 정책은 일제강점기부터 꾸준히 있었다(도연정, 앞의 책). 일제강점기의 부엌 개량은 기존의 조선식 생활 방식을 비문명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일제의 통치 의도와 맞물려 이루어졌다. 또한 전후에는 ‘신국가, 신생활을 창시’(도연정, 앞의 책, 183쪽)한다는 명목 아래 ‘생활의 합리화’ 캠페인이 이어졌다. 이후 박정희 정권의 부엌 개량도 ‘생활개량’을 강조하고 서구식 모델을 내세우며 전개되었다. 이 글에서는 1960~1970년대의 ‘근대 부엌’이 아파트라는 ‘신식’ 주거형태를 중심으로 나타난 것과(도연정, 앞의 책, 228쪽) 싱크대나 냉장고와 같은 새로운 설비를 적극적으로 갖추기 시작한 변화를 주요 배경으로 삼는다.

‘과학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일환으로 나타난 ‘부엌 근대화’ 역시 재래식 부엌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며 위생적이라는 이유로 서구적인 시설과 형태를 갖춘 입식 부엌을 권장하였다.³⁴⁾ 1960년대 초기의 신식 부엌에서는 개량식 아궁이와 타일로 꾸민 입식 개수대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³⁵⁾ 1970년대를 지나며 수도권 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엌의 입식화율이 급증하며 난방시설도 변화한다.³⁶⁾ 1970년대 초부터 “준비-개수-조리-가열-배선의 일관작업이 표준 방식 개념인 부엌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불박이 싱크대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차츰 보급되기 시작했다.³⁷⁾ 1970년대부터 조금씩 보편화하기 시작한 냉장고 역시 1981년에 전국 보급률³⁸⁾이 절반 이상에

34) 재래식 부엌의 ‘불편함과 비위생적인 환경’에 대한 지적은 그 이전에도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1960년의 한 기사는 ‘재래식 부엌’의 단점으로 주부가 일하기 불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점을 꼽았다.

“편리한 부엌이란 부엌의 설비가 일 순서에 따라 배치되고 개수통, 부뚜막, 조리대, 상보기대 등의 높이는 일하는 사람의 키에 알맞게 … 일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재래식의 부엌은 …(3)환기 등의 설비가 불완전하여서 비위생적이고 요리하는 동안에 냄새 연기가 다른 방에 들어가기 쉽다. (4)급수 배수가 완전치 못하여서 불편하고 비위생적이다. (5)쓰레기 버리는 장치가 되어있지 않아 보기에 흉하고 비위생적이다.” (『<부엌조건과 생활개선> 약간의 관심으로 개량을- 명량과 능률을 살리자』, 『동아일보』, 1960. 4. 9.)

35) 도연정, 앞의 책, 197쪽.

36) 도연정은 아파트 부엌이 재래식 부엌과 달리 취사난방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에 위치했으므로 전통주택과 달리 부엌이 집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초기 아파트에서는 연탄아궁이온돌방식을 사용하다가 이는 1960년대부터 80년대를 거쳐 연탄온수보일러 방식으로 바뀌었다(도연정, 앞의 책, 215쪽).

37) 이희봉·양영균·이대화·김혜숙, 『한국인. 어떤 집에서 살았나: 한국 현대 주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115쪽.

38) 냉장고 보급률은 다음과 같다. 경제기획원이 1981년 발표한 「8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에 따르면 냉장고는 다른 가전기구보다 월등히 증가한 보급률을 보였다. 1975년 냉장고를 구비한 가구는 전국에서 6.7%(64만 7천 가구)에 불과했으나 1981년에는 37.4%(297만 8천 가구)로 늘었다(「80년 인구주택센서스 TV보급율 85%」, 『동아일보』, 1981. 5. 11.).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³⁹⁾

흥미로운 점은 부엌 개량으로 인해 주부의 업무가 ‘간소화’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부엌에서의 가사노동은 오히려 더욱 복잡하고 정밀해져야만 했다.⁴⁰⁾ 신식 설비와 더 많은 식품 선택지를 동반하며 부엌은 조리뿐 아니라 주부의 특수한 관리 전략을 필요로 하는 곳, 즉 음식을 더 많이 비축하고 깨끗하게 비워버리기 위한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중산층의 주거 공간으로 표상되는 아파트 단지의 주변에는 중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섰고 신식 부엌의 냉장고에는 육류와 분식류, 가공식품류, 마가린 등의 가공식품이 자리를 차지하였다.⁴¹⁾ 피빔은 콜드체인의 발전과 가공냉동식품의 확산이 식품의 선택지를 늘리는 한편으로 소비·폐기 양을 비약적으로 늘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⁴²⁾ 마찬가지로 현대식 부엌을 갖춘 아파트단지와 소비시설의 확산, 그리고 식단의 변화는 남은 음식물이 한줌의 찌꺼기에서 다량 배출되는 쓰레기로 변모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도시 생활은 음식물찌꺼기를 다량으로 만들어낼 물질적 조건을 갖추고 있던 것이다.⁴³⁾

1980년대의 신문기사에서 현대식 부엌은 음식물찌꺼기 처리에 특화된 위생적 공간으로 그려진다. 음식물찌꺼기를 많이 생산하는 조건을 가내외로

39) 이희봉·양영균·이대화·김혜숙, 앞의 책, 121-122쪽.

40) 김성희·이기영, 「가사노동의 기계화: 도입과정과 배경」,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997, 1-10쪽.

41) 함한희, 『부엌의 문화사』, 살림출판사, 2005, 59-63쪽.

42) 피빔, 헬렌, 서종기 역, 『냉장고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는 필요의 탄생』, 푸른숲, 2021, 208-212쪽.

43)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시작되기 전 실시된 표본조사에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음식물쓰레기(‘주방쓰레기’)의 발생량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양이 더 많았고, 도시지역-농촌지역-어촌지역 순으로 배출량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화의 정도와 생활수준의 경제적 격차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긴밀히 연계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정연규·민달가·정연균·박준환, 「국내 주방쓰레기 발생실태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 25(1), 1993, 105-112쪽.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사에서 부엌은 동시에 음식물찌꺼기를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위생의 거점으로 주목 받았다.

부엌은 가족들의 건강관리에 가장 중요한 곳. 부엌이 지저분하면 바퀴 따위의 벌레가 들끓어 보기에도 불쾌할 뿐 아니라 그릇이나 식품 등을 오염시켜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 우선 가장 많은 신경을 서야 할 것이 식기 및 주방용구. 식기는 좀 귀찮더라도 주방용 세제를 이용해서 깨끗이 닦은 후 끓는 물에 넣어 소독한다. …

이처럼 식기 및 주방용구가 아무리 깨끗하게 처리됐다 해도 어딘지 모르게 불결해 보이는 부엌이 있다. 바로 쓰레기 때문이다. 부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대부분이 음식물인데다 수분이 많아서 파리, 쥐, 바퀴 등을 번식시킨다. 과일껍질 등 물기가 있는 쓰레기나 먹다 남은 음식은 반드시 종이나 비닐에 싸서 버리는 것이 좋다. 또 밥찌꺼기 등 아무리 작은 쓰레기라도 즉각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부엌관리다.⁴⁴⁾

위 기사는 부엌을 질병을 막는 가내의 위생 기지로서 주부의 적극적인 실천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묘사한다. 즉 부엌은 “가족들의 건강관리에 가장 중요한 곳”으로 주부의 집중 관리를 요한다. 가족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부는 “바퀴 따위의 벌레가 들끓”는 가시적인 영역뿐 아니라 “그릇이나 식품 등을 오염”시키는 비가시적인 영역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부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가시적이면서도 비가시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닌 특수한 물질이기 때문이다. 주성분이 음식으로 구성되고 수분이 많은 음식물찌꺼기는 설령 부엌 안쪽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더라도 “파리, 쥐, 바퀴 등을 번식”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부엌의 찌꺼기가 야기하는 잠재적 위험은 일제강점기부터 언론을 통해 일찍이 경고되어 왔다. 하지만 1970년대를 지나 1980년대에 진입하면서

44) 「질병을 막는 깨끗한 부엌」, 『동아일보』, 1981. 7. 9. 강조는 연구자.

찌꺼기는 더욱 까다로운 성질의 오염으로 주목받으며, 특히 중산층의 생활양식을 이상화하는 위생 담론과 밀접히 연계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를 지닌다. 특히 1980년대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층아파트가 확산되며 도시 경관이 차츰 변화한 시기였다⁴⁵⁾. 아파트의 현대식 부엌에서 주부는 가내의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예방하는 중산층 가정의 건강관리자로 묘사되었다. 이때 부엌 그리고 가정이 위생적 공간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음식물찌꺼기의 가시적 물질성과 비가시적 힘에 주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달려 있었다. 음식물찌꺼기 또는 부엌쓰레기는 악취와 축축함으로 인해 불결한 물질로 여겨졌지만 무엇보다 질병이나 쥐벌레를 야기하는 비가시적 ‘힘’을 지니므로써 주부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된 것이다. 개량된 부엌은 이렇듯 음식물찌꺼기의 위협한 능력에 대처할 기술의 거점이었다.

Ⅲ. 음식물찌꺼기, 현대화된 부엌의 위협으로 지목되다

음식물찌꺼기는 겉으로 보기에만 불쾌한 것이 아니라 감염과 해충을 불러오는 잠재적이지만 강력한 힘을 지닌 오염물로 비추어졌다. 현대화된 부엌에서 주부는 이처럼 습기와 악취를 지닌 음식물찌꺼기의 물질성을 통제해야만 했다. 1990년대 관련 제도와 인프라가 마련되기 전까지 음식물찌꺼기의 취급 방법은 체계적으로 형성되진 않았지만, 주부들은 이 독특한 오염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꼼꼼히 처리하며 제도의 빈틈을 메워왔다.

마찬가지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도 미비한 수거 행정 체계의 틈새를 메우는 여성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컸다.⁴⁶⁾ 도시

45) 박철수, 『박철수의 거주 박물지』, 도서출판 집, 2017, 361쪽.

46)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처리를 제도적으로 규정한 사례로는 1987년의 폐기물관리법, 1991년의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1993년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강재성, 「“재활용인”들의 시장경제적 자원순환: 고물상의

공해와 환경오염을 안전의 문제로 인식하며 쓰레기 배출 방식을 개선하고 그 양을 줄이는 대중운동을 주도한 주체는 단연 주부였다. 생활쓰레기 관리의 살림의 일환으로 간주되었으므로 대부분의 가정의 오염물 배출이 주부의 역할로 인식된 배경도 있었다. 정무용은 1970년대의 주부들이 양육과 경제적 살림의 행위자로 호명되었다면, 1980년대부터는 주부들에게 적절한 소비와 쓰레기 배출의 책임도 부여되었다고 지적한다.⁴⁷⁾ 후에 ‘음식물쓰레기’로 제도화하는 주개(廚芥), 부엌쓰레기, 또는 찌꺼기 역시 주부들이 담당해야 하는 쓰레기였다.⁴⁸⁾

한편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로 접어들며 아파트, 또는 아파트식 생활양식이 이전에 비해 보편화하면서 가스렌지·싱크대·식탁을 갖춘 서구식 부엌이 빠르게 확산되었다.⁴⁹⁾ 부엌은 중산층 로망으로 대표되는 도시적인 삶, 그중에서도 세련된 식음(食飮) 생활을 구현하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⁵⁰⁾ 부엌은 성별 분업을 반영하고 재생산하는 곳으로서⁵¹⁾ 싱크대와 냉장고 등의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주부라는 위생 전문가의 과학적 관리 아래 놓인다.⁵²⁾ 더불어 상품(식품)과 폐기물(음식물쓰레기)의 경계를 만드는 사회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23쪽).

47) 정무용, 「1980~90년대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와 분리수거의 도입」, 『서울과 역사』 110, 2022, 269, 286-287쪽.

48) 이어 살펴볼 주부의 역할은 1970-90년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가내의 쓰레기 노동은 대개 여성(주부)의 역할로 나타난다. 일례로 1955년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는 “매일같이 서울시의 쓰레기차가 부지런히 다니지만 지금의 배(倍)의 차가 나오기 전에는 해결하기 불가능한 일”이라 하며 “무진장으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부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주부의힘」, 『조선일보』, 1955. 6. 7.) 이후에도 주부는 공공 수거 체계의 미비함을 메울 주체로 언론기사에서 자주 강조되었다.

49) 전남일·손세관·양세화·홍형욱,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216쪽.

50) 박해천, 『아파트 게임: 그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휴머니스트, 2013.

51) Oates, C. J. and S. McDonald, “Recycling and the Domestic Division of Labour: Is Green Pink or Blue?,” *Sociology* 40(3), 2006, pp.417-433.

문화적 실천이 수행되는 곳,⁵³⁾ 폐기물을 분류하고 내보내는 쓰레기 노동⁵⁴⁾이 이루어지는 거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음식물찌꺼기가 ‘잔반’에서 오염, 그리고 쓰레기로 변모하는 관점을 드러낼 수 있는 핵심 공간으로 부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의 개량식 부엌은 가스레인지, 냉장고 그리고 개수통과 조리대를 포함한 붙박이 싱크대를 포함했다. 그 옆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보다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도 자리하였다. 일찍이 1962년의 산업박람회에 전시된 모범주택에는 싱크대 옆 조리대 위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고 전해진다.⁵⁵⁾ 또한 부엌에 쓰레기통을 두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침은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여러 신문 기사를 통해 홍보되었다. 다음 기사는 ‘부엌쓰레기’의 취급 방법을 부패하기 쉬운 특유의 성질과 함께 강조하고 있다.

장마철과 한여름을 앞두고 벌써 파리, 모기, 불나방, 빈대, 벼룩, 진드기 등 해충이 극성을 떨고 있고 병을 옮기는 세균은 때를 기다려 번식할 틈을 노리고 있다. 이럴 때의 가정위생은 철저한 부엌관리와 해충의 집중 소탕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부엌의 위생적인 관리와 해충 퇴치를 위한 방충 방취재 등을 알아본다. ...

부엌쓰레기통- 그때그때마다 비워두지 않으면 파리, 쥐가 들락거리고 악취가 나며 지저분하다. 가능하다면 쓰레기통을 부엌 가까운 밖으로 내어놓

52) 도연정, 『근대부엌의 탄생과 이면』, 시공문화사, 2020.

53) Evans, D., *Food Waste: Home Consumption, Material Culture and Everyday Life*, London: Bloomsbury, 2014.

54) 이 글에서는 쓰레기를 분류하고 폐기하는 일련의 노동을 ‘쓰레기 노동’으로 포괄해 지칭하며 이 가운데 주방에서의 쓰레기 분리배출에 초점을 둔다. 여기에는 4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엌 소독 등 음식물쓰레기의 흔적을 지우고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세균을 없애버리는 실천을 포함한다.

55) 「쓸모 있는 부엌」, 『경향신문』, 1962. 4. 28.

고 살충제를 뿌려놓은 뒤 뚜껑을 꼭 맞게 덮어놓는다. 요즘은 뚜껑 있는 플라스틱 부엌용 쓰레기통이 많이 나와 있다.⁵⁶⁾

… 조리 시 생기는 부엌쓰레기는 물기가 많으므로 고온다습한 장마철에는 부패하기 쉽고 악취를 뿜는다. 끼니때마다 생기는 찌꺼기는 그때그때 과자 봉지나 라면봉지 등 비닐봉지에 넣어 뚜껑이 꼭 맞는 쓰레기통에 모았다가 버린다.⁵⁷⁾

당시의 신문기사는 아파트를 비롯한 신식 주택, 그리고 그 내부의 현대식 부엌을 무대로 음식물찌꺼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생활 팁을 여럿 다루고 있다. 특히 꼭 맞는 뚜껑을 갖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이용해 음식물찌꺼기를 모아 보관하고 신속히 폐기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처럼 부엌에서 나오는 쓰레기, 음식물찌꺼기는 “부엌 바닥에 버리거나 마당에 던졌다가 쓰레기통으로 드러가는 것”⁵⁸⁾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장소와 방식이 엄격히 규정된 위험 물질로 더 빈번히 묘사되기 시작한다.

부엌은 위생적인 공간으로서 끊임없는 ‘과학화’와 개량의 대상이 되었다.⁵⁹⁾ 이때 주부가 가정의 건강위생 관리자로 호명된 것은 부엌이 단순히 음식 조리의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이며 위생적인 가사노동의 거점으로 부상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 실제로는 아파트가 매우 드물던 1960년대에도 아파

56) 「집안을 깨끗이 부엌위생」, 『동아일보』, 1972. 6. 20.

57) 「불쾌 모르는 장마철을 지내려면」, 『조선일보』, 1980. 6. 19.

58) 「버릴물건없다 계란껍질도 이러케 소용된다」, 『동아일보』, 1935. 9. 10.

59) 물론 이러한 맥락은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윤택림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입식화에 초점을 두고 부엌의 위생과 능률을 강조하는 어조가 뚜렷하다. 그러다 입식부엌이 거의 일반화한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개성, 다양, 고급”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부상한다. 기존의 부엌이 취사를 담당했던 기능적 공간이었다면,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부엌은 식사와 손님 접대를 겸하는 개방적이며 다기능적인 공간으로서 묘사된 것이다. 윤택림, 「해방 이후 한국 부엌의 변화와 여성의 일-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가족과문화』 16(3), 2004, 14-16쪽.

트 생활은 근대식 주거 설비에 대한 로망과 함께 대중적 부러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박철수가 포착하였듯이 ‘깨끗한 아파트’는 “키친에서 직접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등의 편리한 설비를 자랑했다. 아파트에 살면 문 앞에 둔 쓰레기통의 악취와 쓰레기차를 기다리는 수고 따위를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집마다, 또는 층마다 설치된 쓰레기 배출구인 ‘더스트 슈트(dust chute)’ 덕분이었다. ‘한국 최초의 단지식 아파트’로 1962년 지어진 마포주공아파트에서는 현관 근처 복도에 설치된 쓰레기 투입구가 지하의 쓰레기 보관소로 곧장 통해 있었다.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각종 쓰레기를 모아넣는 더스트 슈트는 1970년대 초반 공영·민영 주택에 설치하도록 제도가 되었고 1991년부터는 법령을 통해 모양과 규격이 표준화되었다가 위생을 문제로 다음 해 해당 규칙이 폐지되기에 이른다.⁶⁰⁾

중산층적 삶의 공간으로 표상된 아파트는 이처럼 생활쓰레기 배출과 처리 방법에 대한 논박과 충돌이 거듭 일어나는 장소였다.⁶¹⁾ 높은 수준의 위생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아파트였지만 현실은 달랐다. ‘더스트 슈트’를 둘러싼 시행착오가 보여주듯 아파트에서의 ‘신식 쓰레기처리’는 결코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1970년 6월 『조선일보』에 투고한

60) 박철수, 앞의 책, 125-138쪽.

아파트에 설치된 더스트 슈트는 쓰기는 편리했으나 잦은 고장을 겪었다. 이와 관련하여 부피가 큰 쓰레기를 투기해 슈트의 통로가 막히거나 쓰레기의 불씨가 남아 화재가 나고, 홍수로 집적장의 쓰레기가 분산이 되거나 각종 오물을 직접 슈트에 쏟는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양윤재, 「아파트 쓰레기 수거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환경논총』 28, 1991, 64쪽).

61) ‘새로운 주거양식’ 아파트의 오염 처리 방식이 재래식 문화에 친숙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는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마포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수세식 변기의 사용법을 몰라 애를 먹었고, 이전과 같이 오물을 푸는 변소에 익숙했으므로 용변을 보고도 물을 내리지 않거나 각종 고형물을 버려 고장을 일으키기도 했다(장립중·박진희, 『대한민국 아파트 발굴사: 종암에서 힐타까지, 1세대 아파트 탐사의 기록』, 효형출판, 2009, 43-44쪽).

어느 독자는 “단출한 식구가 살기에는 아파트만한 곳이 없다”며 “아파트생활을 만끽”한다고 자랑하지만 아직은 “아파트 봄이 일어나기엔 이른 것이 아닐까” 자조한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쓰레기통에 밥풀이나 음식찌꺼기를 더덕더덕 붙여놓기가 일쑤”인 등 “공중도덕”의 수준이 심히 낮다는 이유였다.⁶²⁾ 그런가 하면 주부 김경숙 씨는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결혼반지를 찾으러 1983년의 어느 날 아파트 지하로 내려간 경험을 다음과 같이 풀어놓는다.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비닐봉지에 담아버리지 않은 부엌 찌꺼기들이 여기저기 쌓여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 쓰레기통 속의 그 냄새와 더러움은 마치 지옥을 연상시켰고 … 몇 분 동안이었음에도 내 옷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온갖 냄새들이 거짓말처럼 배어 있었다.” 경숙 씨는 심한 악취 속에서 부엌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묶어 버리지 않은 지난날을 깊이 반성했다고 한다.⁶³⁾ 이처럼 아파트의 지하에 위치한 공동 쓰레기통은 낮은 대중의식과 ‘위생적인 아파트 시스템’의 허점을 동시에 드러내는 곳이었다.⁶⁴⁾

물론 가전기기를 풍부하게 갖추고 현대화한 부엌이 1970-80년대에 보편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종 가정기기는 저소득층의 취업주부가 아닌 중산층 이상의 전업주부들을 중심으로 보급되며 과시 품목으로서의 성격을 띠기도 했다.⁶⁵⁾ 이처럼 현대화한 부엌, 그리고 부엌이 표상하는 위생은 실제

62) 「동고동락」, 『조선일보』, 1970. 6. 27.

63) 「쓰레기봉지」, 『경향신문』, 1983. 5. 24.

64) 양운재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쓰레기 처리 방식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다만 단독주택에서는 배출된 쓰레기가 직접 눈에 보이는 곳에, 아파트에서는 비가시적인 공간(지하 집적장)에 놓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쓰레기를 비가시화하는 아파트의 구조로 인해 “사람들은 그야말로 편하게 쓰레기가 처리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며 쓰레기 집적장이 심하게 더러워져도 “아파트 가격이 내린다는 이유로 알고도 모른 척 지나쳐버리는 것이 이제 불문율처럼 되어 버렸다”(양운재, 앞의 논문, 64쪽)고 비판한다.

65) 김성희·이기영, 앞의 논문; 함한희, 앞의 책, 59쪽.

로 충분히 구현되었다기보다는 중산층 생활양식을 향한 하나의 이상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위생 관리자로서의 주부, 그리고 이들이 과학과 기술을 통해 집중 관리하는 부엌 공간의 의미는 부엌의 현대화 흐름을 타고 갈수록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를 거치며 가사일과 육아를 전담하는 주체로서 전업주부라는 여성상이 크게 대두하고⁶⁶⁾ 이후 냉장고·세탁기 등의 주요 가정 기기 보급률이 크게 증가한 것⁶⁷⁾은 이를 보여준다.

Ⅳ. 주부의 몸과 통제되지 않는 음식물찌꺼기의 위험

폐기물은 아파트와 같은 신식 주거지에서조차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골칫거리였다. 그 중에서도 부적절한 방식으로 버려진 음식물찌꺼기는 파리나 쥐 등을 불러오고 전염병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으로 그려진다. 부엌의 쓰레기통을 벗어나거나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을 때’, 즉 “적합한 곳에 있지 못한 것(matter out of place)”⁶⁸⁾으로서의 음식물쓰레기는 가내 위생을 해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였다.

‘과학’은 이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1970-80년대의 신문기사들은 부엌을 “질병을 막는” 가내의 기지이며, 주부들은 가정위생을 위해 각종 소독과 즉각적인 쓰레기처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권유한다.⁶⁹⁾ 즉 적재적소에 화학물질을 살포하는 과학지식을 요구한 것이다. 아래의 한 기사도 음식물찌꺼기와 같이 부패가 쉽고 악취가 나는 물질에 상당히 강력한 살충제를 뿌리도록 권장하고 있다. 지금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진 DDT 역시 그중 하나이다.

66) 윤택림, 앞의 논문.

67) 김성희·이기영, 앞의 논문; 이회봉 외, 앞의 책.

68) Douglas, M., op. cit., p.36.

69) 「질병을 막는 깨끗한 부엌」, 『동아일보』, 1981. 7. 9.

…바퀴벌레는 집안에 있기 마련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 무서운 해충에 속한다. 귀저염, 황열병, 너척수막염, 콜레라, 디프테리아, 파상풍, 결핵 등 많은 병을 옮기는 백해무익한 벌레다. …

이를 없애는 방법은 부엌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햇빛이 잘 들도록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해주는 것과 음식물 간수에 조심하는 것이다. 아울러 오(五)% DDT를 부엌구석이나 찬장에 자주 뿌리도록 해야 한다.⁷⁰⁾

DDT는 “린덴, 디엘드린, 다이아지논”⁷¹⁾ 그리고 BHC 등과 함께 ‘가정 살충제’로 애용되었다.⁷²⁾ 한때 이들은 변소나 부엌에 뿌리는 상비약으로 통했는데, 어린이들이 실수로 삼켰을 때의 대처방법이 기사로 실릴 정도⁷³⁾로 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식물찌꺼기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살포하는 화학물질이야말로 더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다. 집 곳곳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벌레를 죽이려 뿌린 이들 살충제가 인체에 치명적이었던 까닭이다.⁷⁴⁾ 특히 DDT는 땅이나 물, 동식물에 오래 잔류하며 인간 신체에도

70) 「미신 속에 번져가는 무서운 해충 「바퀴」」, 『동아일보』, 1970. 6. 15.

71) 「여름철 식품·환경 위생」, 『매일경제』, 1975. 6. 19.

72) 「여름철 해충 박멸법」, 『매일경제』, 1978. 6. 26. 1960년대 이전에도 DDT를 같은 용도로 쓰길 권유하는 기사들이 확인되며, 1970년대에 들어서는 무분별한 DDT 사용을 경고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73) 「어린이들의 우발사고」, 『조선일보』, 1970. 5. 24.

74) 살충제 및 살균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생태적 관점에서 비판한 초기 사례이자 기념비적 연구로는 1960년대의 미국에서 출간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빼놓을 수 없다. 이 책에서 카슨은 ‘기적의 살충제’로 불리던 DDT가 동식물과 인간에게 장기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을 세밀하게 묘사한다.

196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한국사회에서도 DDT의 잔류독성이 공론화되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었다. 1972년 보건사회부(지금의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살충제 DDT의 부작용 피해를 막기 위해 시판을 전면 금지하기에 이른다(「걱심한 DDT 피해」, 『매일경제』, 1972. 6. 19.; 「DDT 전면 판매(販禁)」, 『매일경제』, 1972. 12. 27.). 『매일경제』 6월 19일자 기사는 DDT가 미국에서 ‘죽음의 특효약’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그 수입이나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침투하여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효과가 있다.⁷⁵⁾ 실제로 “DDT를 부엌구석이나 천장에 자주” 뿌린 것은 해프닝으로만 남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74년,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 25명의 모유에서 DDT와 BHC가 검출되는 사례도 확인되었기 때문이다.⁷⁶⁾ 이때 농촌 출신보다는 도시에 오래 거주한 산모들이 더 높은 검출치를 보였다는 사실도 부엌을 보다 ‘현대적’으로 관리하는 주부들이 독성 화학물질에 빈번히 많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엌의 관리자’인 주부의 몸은 외부의 물질이 투과 가능한 몸, 즉 횡단-신체성으로 인해 “독성물질로 중독된 몸”⁷⁷⁾이다. 인간은 물질의 작용능력에 대한 과학지식을 지니더라도 독성물질이 예기치 않게 야기하는 피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신체는 단단한 경계를 갖춘 개체가 아니라 환경을 구성하는 각종 ‘물질과 힘들’이 언제든지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비가시적인 힘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몸에 쌓이며 몸의 투과성을 증명한다.⁷⁸⁾ 이처럼 “화학이 만드는 …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것들”은 현대 일상의 환경을 조성하면서 인지하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위험을 생성해낸다.⁷⁹⁾ 이때 몸, 특히 여성의 신체는 각종 위험이 교차하고 발현되는 젠더화한 장이 된다. 현대화한 부엌을 관리하며 독성물질에 노출된 주부의 몸도 그렇다. DDT를 비롯한 살충제는 한때 위생과 과학을 상징했으나 오랜

두산백과 두피디아, “디엘드린”·“BHC”(2023년 5월 28일 접속) 참고.

75) 두산백과, “DDT”(2023년 5월 28일 접속.)

76) 「모유서 DDT 등 농약 검출-연세의대 권숙표 박사팀 보고서」, 『경향신문』, 1974. 11. 27.

77) 스테이시 엘리모, 김종갑·윤준 역, 『말, 살, 흙: 페미니즘과 환경정의』, 그린비, 2018, 67쪽.

78) 스테이시 엘리모, 위의 책, 81, 159쪽.

79) Murphy, M., “Indoor Pollution at the Encounter of Toxicology and Popular Epidemiology,” *Sick Building Syndrome and the Problem of Uncertainty: Environmental Politics, Technoscience, and Women Worker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6, pp.81-110.

시간에 걸쳐 주부의 몸에 쌓이면서 ‘해충과 병균’과는 또 다른 종류의 위험을 야기하는 독성물질로 드러났다. 부엌은 비가시적인 위험에 대응할 기술의 거점인 한편, 그런 기술이 불러올 잠재적 위험이 도사린 공간이었던 것이다.

‘위험한 공간’으로 규정된 가내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 역시 재조직되었다. 근대화한 위생을 선전하는 당시의 언론자료는 인간과 함께 사는 벌레들을 강도 높은 어조로 겨냥한다. 1972년의 한 신문기사는 “우리의 조상들이 돈벌레니 강구둥이니 하여 바퀴벌레를 비호”해 왔지만 이는 사실 “각종 질병을 퍼뜨리고 다니는 무서운 해충”이라고 비판한다.⁸⁰⁾ 비슷한 시기의 다른 기사 역시 바퀴벌레를 일부러 잡지 않는 관습을 잘못된 것으로 지목한다. “예부터 우리나라에서 잡기를 꺼리거나 오히려 이들의 번식을 즐겨하는 벌레-바퀴벌레”는 “일명 돈벌레로 불리며 이것이 집안에 많이 있으면 부자가 된다는 허황된 미신 속에 오히려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⁸¹⁾ 이처럼 ‘가정의 위생화’는 집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특정한 동물(바퀴벌레)을 오염된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한다. 위생화한 집은 바퀴벌레 등 ‘돈벌레’와의 공존이 불가능한 공간이 된다.

그러나 ‘근대적 위생’을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미신”은 1990년대까지도 쉽게 깨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90년의 한 기사는 모기와 파리, 바퀴벌레를 통틀어 “질병을 옮기고 다니는 매개충”이자 “인간에게 혐오감을 주”는 곤충을 “위생해충”이라 규정한다. 이어 인간이 위생해충에 대해 느끼는 혐오감을 “지역사회의 문명의 정도와 인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인다.⁸²⁾ ‘문명화한’ 생활을 추구하는 이러한 언설들은 불결함과 문화의 열등함을, 그리고 위생과 문명을 동일시하고 있다. 즉 음식물찌꺼기의 불결한 물질성과 여기에 끼이는 곤충들과의 공존은 전근대적인 구습으로 제시된다. 그

80) 「질병의 온상… 바퀴벌레」, 『매일경제』, 1972. 12. 16.

81) 「미신 속에 번져가는 무서운 해충 「바퀴」」, 『동아일보』, 1970. 6. 15.

82) 「살충제남용 문제점과 효과적 구제법 “서식 가능한 환경개선이 최선”」, 『경향신문』, 1990. 8. 8.

반대편에는 오염과의 의식적 분리라는, 위생과 문명을 상징하는 실천이 있다. 이러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음식물찌꺼기가 지닌 잠재적 힘은 비로소 현실의 위협이 된다.

이처럼 음식물찌꺼기가 오염으로 표상되는 과정은 인간 외의 동물 중에게 특정한 문화적 의미가 부여되는 흐름과도 연계하였다. 그리고 오염으로서의 음식물을 둘러싼 인간-동물 관계의 문화적 재조직은 위 사례와 같이 가정 차원에서 나타나지만은 않았다. 상이한 방식의 관계가 폐기물처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바탕이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일례로 1998년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쓰레기소각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없애기 위해 ‘지렁이 사육장’ 설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⁸³⁾ 집안을 돌아다니는 바퀴벌레처럼 소각장의 지렁이 역시 인간이 남긴 음식물을 먹어치운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바퀴벌레는 인간의 의도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반면 지렁이는 인간에 의해 특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쓰레기를 먹어치운다. 전자는 박멸 대상으로 가내에서 몰아낼 ‘위생해충’으로, 후자는 쓰레기처리에 동원되는 ‘협력적 동물’로 배치된다. 이처럼 음식물찌꺼기-쓰레기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인간은 동물들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는다. 폐기물 처리 체계는 특정한 동물의 삶과 재생산을 체계 속으로 친밀하게 포섭하는 반면, ‘비위생적인’ 동물들은 추방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생의 미학⁸⁴⁾을 완성한다.

V. 나가며

이 글은 한국의 도시 공간에서 음식물찌꺼기가 도시 위생을 위협하는

83)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의무화」, 『한겨레』, 1996. 11. 7.

84) Zhang, Amy, “Circularity and Enclosures: Metabolizing Waste with the Black Soldier Fly,” S. Osterhoudt and K. Sivaramakrishnan eds., *Sustaining Natures*,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23, pp.128-162.

오염으로 재현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특히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중산층의 위생적인 가내 공간을 배경으로 음식물찌꺼기를 오염으로 재현하는 대중적 수사와 표현을 발굴하고, 이를 담론의 형태로 재구성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음식물찌꺼기가 지닌 독특한 물질성을 조명하여 이것이 단순히 버려진 음식물이 아니라 ‘일상의 과학화’를 요구하는 위협으로 구체화하는 양상을 드러냈다.

음식물찌꺼기가 오염으로 변모하는 흐름은 도시 공간, 그리고 그중에서도 중산층의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위생 관념이 보편화하는 과정과 맞물렸다. 이때 현대 부업을 무대로 활동하는 여성(주부)은 가정 내 쓰레기 노동의 주 담당자이자, 정부에서 실시한 환경보호·폐기물처리 정책을 빠르게 인지하고 확산에 기여하는 중요한 실천자였다.⁸⁵⁾ 이들은 폐기물 처리라는 국가적 과제가 중산층과 연계한 이상적인 위생 및 주거 관념과 밀착하여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존재이다.

공식적 범주로서의 ‘음식물쓰레기’에 앞선 과거 부엌쓰레기, 또는 음식물 찌꺼기는 단순히 남은 음식이 아니었다. 음식물쓰레기가 폐기물로 제도화하기에 앞서 전후 한국사회에서는 찌꺼기를 둘러싼 의미 전환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흐름에서는 다음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첫째는 부엌이라는 공간이다. 각종 언론자료에서 음식물 찌꺼기·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할 문제가 주로 주방이나 부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으나, 1990년대 이후 체계화한 쓰레기 인프라가 부엌의 쓰레기노동을 필요로 함으로써 가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⁸⁶⁾ 둘째는 물기와 악취라는 음식물

85) 정무용, 앞의 논문.

86) 1980년대의 주부들이 주된 쓰레기 배출자로 호명되며 폐기물 제도가 현실에서 야기하는 여러 시행착오를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정무용, 앞의 논문)에서 더욱 그러하다. 신문자료를 주로 살펴봄으로써 이와 관련한 구술자료를 다루지 못한 것은 이 글의 한계이다.

쓰레기의 물질성이다. 음식물쓰레기는 냄새 나고 벌레 꼬이는 특유의 성격으로 인해 항상 시급한 처리를 필요로 했다.⁸⁷⁾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1990년대 이후의 인프라에서는 물론 가내에서조차 화학물질을 살포하는 등 ‘과학적’ 처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음식물찌꺼기의 물질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부엌은 가정 위생 담론 아래 위생적이고 멸균된 공간으로 간주되었으며, 주부는 각종 화학물질을 동원해 음식물찌꺼기를 ‘과학적’으로 통제하도록 권유 받았다. 이때 음식물찌꺼기는 특유의 냄새와 물기를 지닌 오염이자 해충을 야기하는 강력하지만 잠재적인 위협으로 재규정되었다. 이러한 물질성은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과학적’ 통제를 무력화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처리 방안을 등장케 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이 글은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음식물찌꺼기가 ‘복합적인 위험’으로 재현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사로 등장한 화학물질로 인해 위험이 더욱 통제하기 어려운 형태로 전개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음식물찌꺼기가 오염으로 재현되는 흐름은 이후 음식물쓰레기라는 공식 범주의 출현 배경이 되었다. 공해와 쓰레기 인프라의 마련이 국가적 화두가 된 1990년대의 시대적 흐름을 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역시 중대한 문제로 조명되었다.⁸⁸⁾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와 감량이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

87) 음식물쓰레기의 물질성은 분리배출을 기본 원칙으로 한 현재의 수집운반 노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한 르포에서 설명하듯이 음식물쓰레기에 포함된 물기는 여름철에 악취와 해충을 유발하고 겨울철에는 통을 열게 만든다.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자원화센터에 도착하여 퇴비 또는 사료로 가공된다. 이때 쓰레기의 이물질을 선별하는 노동자들은 파상풍 주사를 미리 맞아둘 정도로 음식물쓰레기의 세균에 주의해야 한다. 아플라톡신을 비롯한 균들은 이후 700도에 달하는 가열 공정을 거쳐 비로소 소멸된다(「음식물 쓰레기를 보면 사는 사람을 알 수 있죠」, 『한겨레21』, 2021. 8. 9).

88)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다음 기사를 참고하시오. 「덜 먹고 덜 쓰고 다시 쓰기’ 확산 IMF가 쓰레기 줄였다」, 『경향신문』, 1998. 1. 4. / 「중량제 시대-쓰레기 5대 난제」, 『한겨레』, 1995. 1. 18.

치며 ‘국가적 문제’로 부상한 것은 그 양이 그 이전에 비해 증가하기도 했지만⁸⁹⁾ 유기성 폐기물의 혼합 폐기 시 발생하는 2차 오염이 꾸준히 문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음식물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중에서도 30퍼센트를 전후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000년대 이전까지 혼합배출되어 처리되고 있었다. 대부분 매립되었으나 이 때문에 침출수와 악취가 발생하거나, 물기 때문에 소각에도 용이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⁹⁰⁾ 1990년대에는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한편으로 폐기물의 분리 배출과 자원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쓰레기종량제가 1995년 실시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확대된 것도 그 일환이다.⁹¹⁾ 음식물쓰레기의 제도화 역시 이 같은 배경을 타고 전개되었다.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마련되면서 음식물쓰레기의 물질적 성격에 대처하기 위한 지자체의 부단한 노력은 실패를 거듭하였다. 이를테면 1990년대 중반 내무부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미생물발효제를 섞어 버리라고 지자체에 권장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다. 게다가 염분이 포함된 음식물을 토양에 뿌리면 흙이 딱딱해지는 부작용도 있었다.⁹²⁾ 이렇듯 음식물쓰레기의 물질적 성질은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요소였으므로 이를 깔끔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책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계속해서 새로워질

89) 음식물·채소류의 배출량은 집계가 시작된 1985년부터 1990년까지 기복을 보이면서도 증가한 양상을 보여준다. 1985년에는 11,460톤이었던 일별 배출량이 1990년에는 23,003톤으로 크게 뛰었다(환경처, 「전국일반폐기물 처리실적(90) 및 계획(90)」, 환경처, 1991, 5쪽). 상당히 높은 배출량을 기록한 1990년도 이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차츰 감소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전반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11,000톤 대를 유지하게 된다(환경부, 「2000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2001, 3쪽; 환경부, 「2005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2006, 13쪽).

90)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기본계획(1998~2002)」, 환경부, 1998, 9쪽.

91) 환경부, 『1996 환경백서』, 환경부, 1996, 275-276쪽.

92) 『한겨레』, 1995,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차질,” 5월 27일자.

수밖에 없었다. 이는 쓰레기가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는 과정이 인간과 비인간의 끊임없는 관계 맺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허드 외⁹³⁾의 지적과 상통한다. 즉 특정 사회에서 폐기물의 부상은 거시적인 사회-윤리적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기저에는 사회적 가치와 권력, 그리고 예기치 않은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물질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구성된 정치의 연결망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인프라의 구축 역시 찌꺼기의 다루기 어려운 물질성을 통제하려는 연속적인 시도를 포함했다.

최근 ‘크린넷’이라 불리는 쓰레기 운반 체계의 한계 역시 음식물쓰레기의 물질성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 지하에 연결된 수거관을 통해 쓰레기를 이동시키는 자동집하 시스템, 크린넷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된 바 있다.⁹⁴⁾ 그러나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함께 지하관로로 옮기는 과정이 결국 ‘클린’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름철에는 관로 내부의 음식물이 빠르게 부패하는 데다 장마철 바람으로 악취가 퍼지는가 하면, 관로 역시 물기 때문에 쉽게 고장이 났기 때문이다.⁹⁵⁾ 이러한 상황은 비교적 최근에 마련된 폐기물처리 기반시설 역시 음식물쓰레기의 위험한 물질성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글은 신문기사를 분석하여 음식물찌꺼기가 공식적인 쓰레기로 제도화하기 이전부터 사회문화적 오염으로 변모하고 주부들의 위생적인 가사노동을 요구해왔음을 드러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자원화하는 이후의

93) Hird, M., S. Loughheed, R. K. Rowe, and C. Kuyvenhoven, “Making Waste Management Public (or Falling Back to Sleep),” *Social Studies of Science* 44(3), 2014, pp.441-465.

94) 성남시, 『판교 크린넷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연구보고서』, 성남시, 2021.

95) 다음 기사는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크린넷과 집하장에 관해 10년째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경기 김포시 장기 집하장 인근의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크린넷 폭탄 돌리기’에 고통받는 2기 신도시 주민들」, 『경기신문』, 2023. 7. 31.

인프라가 등장하기에 앞서, 음식물찌꺼기가 근대 위생 및 윤리적 실천의 대상으로 자리해왔음을 뜻한다. 음식물찌꺼기를 둘러싼 대중 담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신문기사를 주로 분석한 본 연구는 제도 변화의 구체적 맥락을 다루지 못하고 약 30년에 이르는 긴 시간을 다소 단순한 형태로 재구성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추후 연구에서는 관련된 일차자료 및 구술자료를 통해 이상의 흐름을 더욱 세밀하게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재성, 「“재활용인”들의 시장경제적 자원순환: 고물상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김백영, 『지배와 공간—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09.
- 김상은, 「일제하 도시청소행정 of 전개와 변화—「조선오물소제령(朝鮮汚物掃除令)」 제정 전후의 비교—」,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김성희, 이기영, 「가사노동의 기계화: 도입과정과 배경」,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997, 1-10쪽.
- 김은진, 「20세기 초 일제의 서울지역 오물처리체계의 개편과 한국인의 대응」, 『서울과 역사』 119, 2025, 231-268쪽.
- 도연정, 『근대부엌의 탄생과 이면』, 시공문화사, 2020.
- 박윤재, 「위생에서 청결로-서울의 근대적 분노 처리」, 『역사비평』 126, 2019, 260-280쪽.
- 박해천, 『아파트 게임: 그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휴머니스트, 2013.
- 박철수, 『박철수의 거주 박물지』, 도서출판 집, 2017.
- 배상희, 「느린 재난의 인프라: 넝마주이와 연탄재를 통해 본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의 형성과 작동, 1977-1993」, 『환경사회학연구(ECO)』 26(2), 2022, 39-86쪽.
- 서호철, 「서울의 똥오줌 수거체계의 형성과 변화-189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반까지」, 『서울과 역사』 93, 2016, 175-221쪽.
- 성남시, 『판교 크린넷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연구보고서』, 성남시, 2021.
- 소준철, 「서울시 쓰레기 처리체계의 형성, 1966-1993」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22.
- 수전 스트래서, 김승진 역, 『낭비와 욕망: 쓰레기의 사회사』, 이후, 2011.
- 스테이시 엘리모, 김종갑·윤준 역, 『말, 살, 흙: 페미니즘과 환경정의』, 그린비, 2018.
- 양윤재, 「아파트 쓰레기 수거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환경논총』 28, 1991, 61-70쪽.

- 오길중, 「[기획특집] 음식물쓰레기 정책의 국내·외 현황 비교와 개선점」, 『모심과 살림』 21, 2023, 20-33쪽.
- 오은정, 「“쓰레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서울의 뉴타운 쓰레기-인프라와 분리수거 리듬 만들기」, 『한국문화인류학』 58(2), 2025, 49-100쪽.
- 윤택립, 「해방 이후 한국 부엌의 변화와 여성의 일-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가족 과문화』 16(3), 2004, 3-41쪽.
- 이상용·이승원·김정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효율 및 저감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기술학회지』 16(1), 2015, 26-34쪽.
- 이희봉·양영균·이대화·김혜숙, 『한국인. 어떤 집에서 살았나: 한국 현대 주생활 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 장림중·박진희, 『대한민국 아파트 발굴사: 종암에서 힐탑까지, 1세대 아파트 탐사의 기록』, 효형출판, 2009.
- 전남일·손세관·양세화·홍형욱,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 전원근, 「연안마을 인프라의 연쇄와 폐허의 생산: 애월항의 다중적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49, 2024, 91-125쪽.
- 정무용, 「1980-90년대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와 분리수거의 도입」, 『서울과 역사』 110, 2022, 267-305쪽.
- 정연규·민달기·정연균·박준환, 「국내 주방쓰레기 발생실태에 관한 연구」, 『산업 기술연구소 논문집』 25(1), 1993, 105-112쪽.
- 정재춘·정원태·탁성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유기물자원화』 3(2), 1995, 91-96쪽.
- 정혜경·김혜숙, 「1910년대 식민지조선에 구현된 위생정책」, 수요역사연구회 편,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매일신보 1910년대』, 도서출판 두리미디어, 2005, 61-122쪽.
- 최창원·정윤수·이진원·김월중,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정책의 분석과 과제」, 『국가정책연구』 27(2), 2013, 263-288쪽.
-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역,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 피빗, 헬렌, 서종기 역, 『냉장고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는 필요의 탄생』, 푸른숲, 2021.
- 한지원, 『조선총독부 의료민속지를 통해 본 위생풍습 연구』, 민속원, 2013.

- 함한희, 『부엌의 문화사』, 살림출판사, 2005.
- 홍정화, 「가정 내 음식물쓰레기 감축 행동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계획된 행동 이론을 중심으로」, 『외식경영연구』 25(3), 2022, 81-105쪽.
- 환경처, 「전국일반폐기물 처리실적(90) 및 계획(90)」, 환경처, 1991.
- 환경부, 『1996 환경백서』, 환경부, 1996.
-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기본계획(1998-2002)」, 환경부, 1998.
- 환경부, 「2000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2001.
- 환경부, 「2005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2006.
- Doherty, Jacob and Kate Brown, “Labor Laid Waste: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on Waste Work,”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Class History* 95, 2019, pp. 1-17.
- Douglas, M.,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London: Routledge, 1966.
- Evans, David, *Food Waste: Home Consumption, Material Culture and Everyday Life*, London: Bloomsbury, 2014.
- Fredericks, Rosalind, *Garbage Citizenship: Vital Infrastructures of Labor in Dakar, Senegal*, London : Duke University Press, 2018.
- Hird, M., S. Loughheed, R. K. Rowe, and C. Kuyvenhoven, “Making Waste Management Public (or Falling Back to Sleep),” *Social Studies of Science* 44(3), 2014, pp. 441-465.
- Larkin, B., “The Politics and Poetics of Infrastructur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42, 2013, pp. 327-343.
- Murphy, M., “Indoor Pollution at the Encounter of Toxicology and Popular Epidemiology,” *Sick Building Syndrome and the Problem of Uncertainty: Environmental Politics, Technoscience, and Women Worker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6, pp. 81-110.
- Oates, Caroline J. and Seonaidh McDonald, “Recycling and the Domestic Division of Labour: Is Green Pink or Blue?,” *Sociology* 40(3), 2006, pp. 417-433.
- Reno, J., “Toward a New Theory of Waste: From ‘Matter out of Place’ to Sign of Life,” *Theory, Culture & Society* 31(6), 2014, pp. 3-27.

- Reno, J., "Waste and Waste Management,"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44, 2015, pp. 557-572.
- Zhang, Amy, "Circularity and Enclosures: Metabolizing Waste with the Black Soldier Fly," S. Osterhoudt and K. Sivaramakrishnan eds., *Sustaining Natures*,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23, pp. 128-162.

언론자료

- 「'크린넷 폭탄 돌리기'에 고통받는 2기 신도시 주민들」, 『경기신문』, 2023. 7. 31.
- 「용의주도한 생활 좁은 땅에라도 소채를 가꾸자」, 『경향신문』, 1950. 4. 30.
- 「16명 집단 식중독 반도호텔서 나온 찌꺼기 먹고」, 『경향신문』, 1962. 4. 28.
- 「쓸모 있는 부엌」, 『경향신문』, 1962. 4. 28.
- 「모유서 DDT 등 농약 검출-연세의대 권숙표 박사팀 보고서」, 『경향신문』, 1974. 11. 27.
- 「쓰레기봉지」, 『경향신문』, 1983. 5. 24.
- 「살충제남용 문제점과 효과적 구제법 "서식 가능한 환경개선이 최선"」, 『경향신문』, 1990. 8. 8.
- 「이대로 가면 「쓰레기 강산」」, 『경향신문』, 1991. 1. 22.
- 「덜 먹고 덜 쓰고 다시 쓰기 확산 IMF가 쓰레기 줄였다」, 『경향신문』, 1998. 1. 4.
- 「버릴물건없다 계란껍질도 이러케 소용된다」, 『동아일보』, 1935. 9. 10.
- 「<부엌조건과 생활개선> 약간의 관심으로 개량-명량과 능률을 살리자」, 『동아일보』, 1960. 4. 9.
- 「취는 노린다 당신의 생명과 재산을…」, 『동아일보』, 1968. 9. 7.
- 「미신 속에 번져가는 무서운 해충 「바퀴」」, 『동아일보』, 1970. 6. 15.
- 「집안을 깨끗이 부엌위생」, 『동아일보』, 1972. 6. 20.
- 「80년 인구주택센서스 TV보급율 85%」, 『동아일보』, 1981. 5. 11.
- 「질병을 막는 깨끗한 부엌」, 『동아일보』, 1981. 7. 9.

- 「쓰레기 내년부터 분리수거」, 『동아일보』, 1990. 7. 24.
- 「격심한 DDT 피해」, 『매일경제』, 1972. 6. 19.
- 「질병의 온상… 바퀴벌레」, 『매일경제』, 1972. 12. 16.
- 「DDT 전면 판매(販禁)」, 『매일경제』, 1972. 12. 27.
- 「여름철 식품·환경 위생」, 『매일경제』, 1975. 6. 19.
- 「여름철 해충 박멸법」, 『매일경제』, 1978. 6. 26.
- 「부역을 었더케 고칠가 수도와 찬장과 뒤주와 하수도까지 부역속에 두도록(대담)」, 『매일신보』, 1938. 5. 4.
- 「부역살림」, 『매일신보』, 1938. 8. 24.
- 「주부의힘」, 『조선일보』, 1955. 6. 7.
- 「어린이들의 우발사고」, 『조선일보』, 1970. 5. 24.
- 「동고동락」, 『조선일보』, 1970. 6. 27.
- 「쓰레기 버려진 공해… 대책은 없나 ② 얼마나 쏟아지나」, 『조선일보』, 1978. 3. 22.
- 「쓰레기 버려진 공해… 대책은 없나 ④ 주부들의 소리」, 『조선일보』, 1978. 3. 24.
- 「불쾌 모르는 장마철을 지내려면」, 『조선일보』, 1980. 6. 19.
- 「오물 자동 분쇄기 하수 정화에 방해」, 『조선일보』, 1989. 8. 16.
- 「깨끗해야만할 찬장·부엌·수채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주부들은 주의하시오」, 『중외일보』, 1927. 8. 11.
- 「위생상주의해야할 부엌과 쓰레기통- 부엌에는 환기창을 뚫고 쓰레기통도 구멍을 뚫어」, 『중외일보』, 1928. 7. 17.
- 「종량제 시대-쓰레기 5대 난제」, 『한겨레』, 1995. 1. 18.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차질」, 『한겨레』, 1995. 5. 27.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의무화」, 『한겨레』, 1996. 11. 7.
-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 사는 사람을 알 수 있죠」, 『한겨레21』, 2021. 8. 9, 40-41쪽.
- 「心掛一つで出さずに済むお家の「塵芥」」, 『京城日報』, 1941. 3. 19.
- 「厨芥を利用せよ」, 『京城日報』, 1942. 4. 16.

Abstract

THE CHANGING STATUS OF FOOD WASTE IN MODERN
KOREAN CITIES: EVIDENCE FROM NEWSPAPER ARTICLES,
1960s - 1990s

HWANG EUIJIN (HWANG, EUI JIN)

This study examines the news media reports in the 1960-90s and focuses on the process by which food scraps, which originally had diverse uses and meanings, came to be categorized as cultural and institutional 'pollution'. Food waste, as a official waste category was established as an officially recognized and separately managed waste category in the 1990s. In earlier Korean society, food waste was not officially designated but was perceived as a 'dirty and hazardous substance,' which was regarded as requiring specialized management and control. This article highlights that the social and cultural basis for recognizing this substance as 'official waste' was already established prior to the infrastructural developments in the 1990s.

Particularly, the discourse representing leftovers as pollution was constructed in conjunction with two key elements. One is the modern kitchen, a domestic space managed primarily by the housekeeper. This area was reshaped continually by 'kitchen modernization' project, which aimed to produce a hygienic and sterilized domestic area. In this discourse, the housekeeper was encouraged to control food scraps through the

application of various chemical agents. The other is the organic materiality of food waste, characterized by its 'smell, moisture, and ease of decomposition,' which continuously undermined attempts at 'scientific' controls on food waste and demanded new methods of disposal. As a result, food waste was redefined as potential pollution and a threat that needed to be promptly removed, rather than the previous concepts of 'leftovers' or 'fertilizer.' This article explores the reasons behind food waste being identified as a complex risk and traces the process that chemical agents deployed to effectively deal with food waste amplified its 'risks' in unpredictable ways.

Key Words : leftovers, food scraps, food waste, pollution, risk, kitchen modernization, domestic hygiene, housewife

